

13기 방글라데시 비리시리팀
무빙스쿨 <참된교육이란 무엇일까?>



1. 주제 - "참된 교육이란 무엇일까?"

참된 교육

우리들은 어렸을때부터 남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고 경쟁하는 획일화된 교육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아이들은 스스로가 '나는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하는지' 에 대한 고민을 할 새도 없이 암기위주의 교육에만 계속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팀은 이렇듯 한가지 길로 강요하는 입시교육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안교육을 큰 이슈로 잡고 그렇다면 과연 참된 교육은 무엇인지, 무엇이야하는지 고민해보기로 하였습니다.

2. 무빙스쿨을 떠나기 전!

과연 많이 안다는 것이 진짜 똑똑한 것일까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할 줄 아는 이성은 무시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사회적 성공으로 성공한 개인의 윤리는 능력과 분리해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협력과 조화를 이루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을 행해질 수 없는 것일까요?

**저희 팀은 위와 같은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정답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비리시리 팀의 좌충우돌 하루를 함께 떠나보시죠! :)**

15.01.13 (화)

아침 아홉시,
경상도 보리문디 셋과 서울 뺨질이 한명
으로 구성된 저희팀은 오랜만에 바깥공기
를 쐬기에 설레는 마음으로 연수원을 탈
출했어요.

자발적 불편을 실천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반납하고 기관을 방문해야 했어요. 그러
자 곧 길태오(26)씨는 계속 주머니를 뒤
적거리고 휴대폰 없이 이어폰만 귀에 꽂
는 등 금단증상에 시달렸어요.

도착 전,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미리 연락
을 드렸어요. 이제 우리에게 공중전화는
신기했지만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네이버 지도 어플에 익숙해져 있던
우리들은 종이 지도를 뽑아갔지만
바보들의 모임(길치, 방향치)이었기
에 쉽게 찾을 수 없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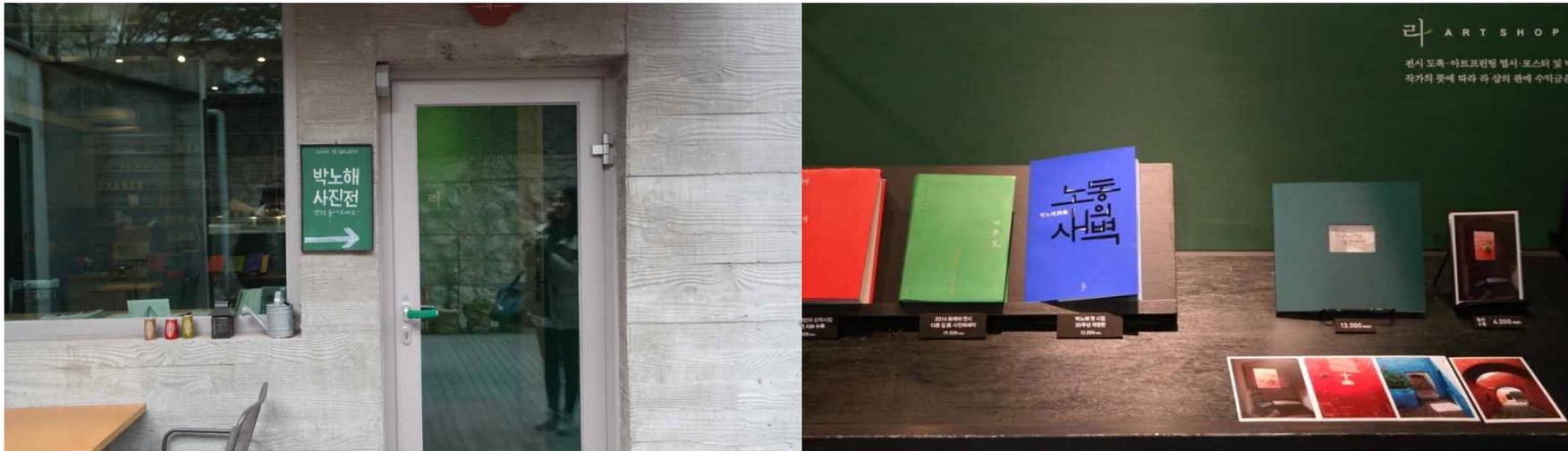
**마침 교통정리를 하고 계시는
경찰 아저씨께 길을 묻고
경찰서에 들어가서 또 묻고
시민들에게 묻고
그렇게 물어 물어....**





드디어 첫번째 기관, <나눔문화> 가는 길 표지판을 발견!!!!

3. 나눔문화 소개



〈나눔문화〉는 빈민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주말학교가 이뤄는 ‘나누는 학교’ 뿐만 아니라 학생, 청년, 성인들을 위한 대안적인 토론과 평생 교육의 장이 펼쳐지고 있어요.

‘대학생 나눔문화’로 고전 100권 읽기, 농촌활동, 사회실천 활동 등을 진행하고 ‘나눔문화포럼’ 프로그램은 사회전반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 전문가와 일반인들이 함께 강연을 나누고 토론을 진행하고 있어요. 또한 ‘라 카페 갤러리’를 운영하여 하여 박노해 시인의 ‘반전, 평화’ 등을 주제로 한 사진들을 전시중이에요.



**저희 팀은 ‘이상훈 연구원’님을 만나뵙기 전 찬찬히
이번 전시를 구경했어요.**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고통을 견디며 자신의 삶에 감사하는 페루의 사람들을 보
며 마음이 평온해지는 시간이었어요.**

**마치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인듯한 전시를 보며
정기용 팀원은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고 해요.**

**실제로 zoom을 사용하지 않은 채 바로 앞의 사람들을 담았다고 하니, 박노해 시인
께서 그 마을과 지역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며 공동체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크
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4. 나눔문화

(이상훈 연구원님과의 인터뷰 中)

- 참된 교육을 묻기전에 거짓된 교육을 아는것으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 진정한 성찰은 물에 비친 모습이 아닌 사람을 통해 비친 자신의 모습이다.
- 부딪히고 깨진것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다.
- 과정 자체를 살며, 알고 있는 것을 꾸준히 실천해 나간다.
- 삶을 알고싶은가? 아니면 살고싶은가?
- 끊임없이 자기자신에게 낯설게 질문하라

연구원님은 저희들의 질문에 바로 대답을 해주시는 것이 아닌 다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결국 생각하던 것 속에 답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부암동의 소문난 맛집 자하손만두
너무 먹고 싶었지만 만두국 가격은
무려 12000원!!

VS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치즈밥...

한정된 예산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
을 모두 하지 못하고 다른것을 찾아
해맸지만 그속에서 팀원들과 함께
웃었던 소중한 추억이 생겼어요.
김혜련(24)씨 정말 맛있게 먹죠 ?





모모와의 시간약속이 촉박해 택시를 이용하였지만, 결국 이는 예산(버스비 1100 X 4 = 4400 VS 택시비 4000) 과 시간을 모두 아끼고 모모 담당자분과의 약속도 지킬 수 있는 보람된 결과로 이어졌어요.



경찰서에 들어가 길을 물어가며 처음 가본 청년일자리허브센터는 그 거대함으로 저희를 놀라게 했고, 입구에 있는 그곳의 지도를 보며 저희 목적지를 알차게 찾아가보았습니다. 이제 지도 어플이 없어도 길을 잘 찾아가는 모습은 저희를 또 한번 놀라게 했어요!

5. 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

모모는

‘모두가 모두로부터 배운다’

미하일엔데의 동화주인공 모모처럼 폭력적인 사회를 살아가는
개개인이 평화에 더 가까운 선택을 할수 있도록 사색적 머무름의
시간을 찾고자하는 곳입니다.

모모가 지향하는 평화로운 세상은 중간이 넓은 마을, 다름을 인
정하는 사회, 돌아봄의 여유가 있는 마을을 꿈꿉니다.



그곳에 발을 들이자마자 연신 “우와”를 외치며 아기자기하고 세련된 모습에 반해 인터뷰도 까먹은 채 이곳 저곳 살펴보기 바빴어요. 공부를 하기에 친구들과 커피한잔하며 수다떨기에도 너무 좋은 곳이었답니다.



그런 저희의 눈이 너무 간절했는지 전세현 담당자분께서 센터의 소개를 해주셨어요. 소개를 들으면 들을수록 정기용(25)씨는 풀뿌리 기관에 관심을 가지며 자신의 미래를 정해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시작된 인터뷰! 얼마 전 전체훈련 교육시간에 웃으며 보
었던 전세현 담당자님은 이번에는 너무 좋은 말씀으로 저희들에
게 큰 깨달음을 주셨어요.**

4. 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 (문아영 대표, 전세현 담당자 인터뷰 中)

- 평생 하고싶은것을 찾기전까지는 방황하겠다
- 어려움을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문제에 직면했을때가 좋다.
- 삶은 배움의 과정이다.
- 세상 일 하나하나에 다 관여할 수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 청년들이 자기 확신을 가지고 들이박을 수 있는 무모함을 가졌으면 좋겠다.
- 중간이 많은 다름을 인정하는 사회를 꿈꾼다.

문제의 답을 찾는것에만 익숙해져 있던 저희들에게 더욱 큰 깨달음으로 와닿았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뒤늦게 저희를 위해 와주신 문아영대표님은 전세현담당자님과
함께 저희에게 너무 소중한 추억을 선물해주셨습니다. 지금와서
생각해도 웃음나는 즐거운 추억이었네요**



인터뷰를 한창 진행하던 중 멀리서 우리와 눈이 마주쳤던 딜리팀. 모두 오늘 오전에 봤던 얼굴이었지만 연락하지 않고 만나서 더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자기기 없이는 소통이 어려운 요즘 한번쯤은 이런 만남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설레임으로 다가오는지 느꼈던 하루였어요.



▲ 정기용(25), 영천 거주, 대학생

"천천히 가도 괜찮아 길만 제대로 알고 있다면"

사회가 모두 빠른것에만 몰두하며 더욱 더 빨리하는것을 추구하는 이때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오며 우연히 이 글귀를 보았습니다. 마치 우리의 귀에 속삭이듯 큰 감명은 준 이 글귀는 우리가 너무 속도에만 치중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소감

현희 : 대안적인 삶을 추구하고 싶지만 용기가 나지 않는다는 말에 이상훈 연구원님은 아는만큼 실천하고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결국 두 기관을 통해서 사람이 제일 먼저이기에 뜻을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나고 싶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변화하여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 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태오 : 평소에 모르던 분야에 대한 교육과, 기관방문이 이어지니 사실 처음에는 어리둥절하고, 정말 이런 분야도 있었구나하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소중한 시간과 기억이라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것 같다.

기용 : 지금까지 내 자신이 너무 이기적이었던것 같다. 이제는 세상일 하나하나 관여해 볼려고한다. 삶은 배움의 과정이다.

혜련 : 단순히 대안교육에 대한 생각은 지역아동센터에서 했던 것을 기준으로 기존의 교육이 아닌 제2의 느낌이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이번 무빙스쿨을 통해 대안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것 같아 좋았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고생은 끝이 없겠지만
그 고통을 견뎌내는 사랑 또한 끝이 없으리니
그라시아스 알라비다, 내 삶에 감사합니다

박노해

감사합니다
Thank you

[돈노뱃]

